

# 그들도 우리 형제... '조국과 불교' 심어주죠

## 덴마크 입양아들의 대모 이미림씨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는 한국을 미워하고 자신을 버린 친부모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어 인생을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 하나만이라도 잘 살게 하려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부모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지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덴마크 문화의 날’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천태종 덴마크 신도회 고대정 회장(56· 덴마크 입양인 한글학교 교장)과 이미림씨(47) 부부는 14년간 덴마크 한글학교를 운영하며 입양아들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23년전 덴마크 태권도 국가대표 총감독을 맡으면서 수도 코펜하겐에 정착한 고씨 부부가 입양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나름대로 계기가 있었다.

흐리고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이 많은 북유럽 특유의 기후와 날씨에 잘 적응하지 못한 부인 이미림씨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자식을 하나 더 갖고 싶어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병을

### 1만여 입양아 위해 한글학교 설립

### 거처간 인원 수백... 사연 구구 절절

많은 대수술을 받게 돼 입양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입양 문화가 보편화 돼 있는 덴마크지만 의외로 입양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부모 모두가 건강해야 하고 결혼한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입양자와 양부모의 나이차가 40년 이상은 나야 하는 등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을 할 수 없게 된 이씨가 결심하게 된 게 바로 1만여 입양아들을 위한 한글학교의 설립이었다. 작은 규모지만 1990년 초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코펜하겐 로젠버그 공원 근처에 자리를 잡고 학생 실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남편 고대정 회장, 아들 고우진(22)군과 함께 열심히 가르쳤다. 한글학교는 단지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입양아들만이 안고 있는 아픔을 나누는 장소였다. 때론 선생님으로, 때론 부모처럼 이들을 맞았다. 학교를 거처간 인원이 수백명에 달하다보니 사연 또한 구구절절하다.

코펜하겐 대학 심리학학과에 다니는 이덕림(35)씨는 13세때 양부모들이 이혼해 두 번씩이나 버림받은 경우다. 그 충격을 안고 살아



◊입양아들을 또다른 한인 2세라 생각하는 이미림 씨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모 역할을 10년째 계속 하고 있다.

가다가 18세때 디스코텍에서 만난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 한 후 미혼모가 돼 방황하다 한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입양아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모나 김 라우(34)는 태권도를 잘했던



◊남편 고대정(오른쪽)씨는 이미림 씨의 든든한 후원자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 슬픈 나날을 보내다 이미림씨를 만났다. 이 학교에는 이처럼 입양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다. 모니카 에어스타(37)와 같이 양부모들도 와서 한글을 배운다. 얼마전 입양한 '미라'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입양아들과 함께 단양 구인사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는 이미림 씨.

이씨는 한글학교외에도 4년전에는 이곳에 '한국의 집'이란 한국음식점도 냈다. 인테리에도 용인 민속촌이나 서울 인사동에서 구입한 한국 냄새 물씬 나는 소품을 사용했다. 이곳에서 입양아들에게 만큼은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음식을 준다. 종업원들도 입양아들만 고용한다. 코펜하겐대를 졸업한 종업원 메대 킹 님슨(28)은 초봉이 4백만원에 넘는 좋은 직장도 거절하며 단지 이곳이 좋아서 입양아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념일이나 생일파티를 이곳에서 하는 입양아들이 많다. 단순한 식당을 넘어 어느새 한국 입양아들의 본부가 됐다. 이씨는 얼마처럼 퍼주고 나눠주며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입양아들이 혼자 식사할 때면 얼마같이 밥동무(?)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찘다고 환하게 웃는다. 그녀가 이렇듯 엄마 역할을 주저하지 않는 데에는 입양아들이 막상 부모를 찾지도 문화적인 차이와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던 세월의 무게 때문에 애절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해 늘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장 부부는 또 덴마크의 유일한 한국 사찰인 천태종 포교당도 운영한다. 지난해 4월부터 5월초까지 2002 한일월드컵을 홍보하는 바리춤 공연을 위해 덴마크를 방문한 월장 스님(금강불교대 총무처장)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의 인연으로 올해 초 문을 열었다. 교회장의 태권도장 한쪽 공간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평일은 입양아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참선교육과 교리지도도 하고 있다. 30여명의 신도가 매월 1회 법회를 봉행하고 있기도 하다.

### 4년전 시작한 음식점, 아이들 본부

### 포교당 운영, 현지인 참선 교육지도

이씨는 이곳에서 매일 입양아들이 정신적 공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기도한다. 양부모들의 보호, 풍족한 경제사정 등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입양아들이지만 나름대로 아픔을 한층씩 간직하고 산다. 그래서 이씨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이씨는 이들을 또다른 한인 2세라고 생각한다. 또다른 한인 2세들과 동고동락하며 한가족처럼 부모형제가 돼 함께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씨가 살아가는 현재, 앞으로의 희망이다. 올해 처음 개최한 '덴마크인의 날'을 계기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입양아와 양부모들을 데리고 방한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해줄 생각이다.

“내년 8월에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입양인들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교회장 부부는 함께 고국을 찾았던 30여명의 입양아들과 12일 단양 구인사 참배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19일 덴마크로 돌아갔다.

글=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제 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구산선문종 하나인 사자산문의 종찰인 사자산 법흥사와 천혜의 원시림속에 자리잡은 백덕산 관음사 수련원에서 제 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를 엽니다. 이번 캠프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참배, 마음공부, 참선, 부처님이야기 등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관음사 계곡에서는 신나는 물놀이와 화려하고 맛있는 캠프파이어를 진행합니다. 대자연과 함께하면서 백덕산 광산을 보고, 다양한 식물체취, 다람쥐, 새, 사슴과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정 : 2003년 7월 29일(목) ~ 7월 31일(토) 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적멸보궁), 백덕산 관음사 일대
- 대 상 : 초등학교 1 ~ 6학년(선착순 150명)
- 참가비 : 6만원(교통비 및 여행가보철료 포함)
- 준비물 : 점심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 문의전화 : 02)722 - 4162~3
-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예금주 김원우)

※ 출 발 : 7월 29일 오전 9시 조계사삼 ※ 도 착 : 7월 31일 오후 6시 조계사삼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 협 찬 : (재)보덕학회, 신수회 ■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 ◆ 제 6회 부다피아 일정표 ◆

7월 29일 화요일		7월 30일 수요일		7월 31일 목요일	
시 간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05:30-06:00	조계사 9시 집합	05:30-06:00	기상, 세면	05:30-06:00	기상, 세면
06:00-07:00		06:00-07:00	예불 및 체조	06:00-07:00	예불 및 체조
07:00-08:00		07:00-08:00	아침공양	07:00-08:00	아침공양
08:00-09:00		08:00-09:30	참 선	08:00-09:00	부처님 이야기, 참선
09:00-10:00	출발-도착	09:30-10:00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 참배	09:00-10:00	09:00-10:00
10:00-11:00		10:00-11:00		10:00-11:00	신나는 미니올림픽
11:00-12:00		11:00-12:00		11:00-12:00	
12:00-13:00		12:00-13:00		12:00-13:00	점심 공양
13:00-14:30	입 제 식	13:00-14:00	휴 식	13:00-14:00	회향식 및 시상식
14:30-15:30		14:00-14:30		14:00-15:00	
15:30-16:00		14:30-16:00		15:00-16:00	집으로...
16:00-16:40		16:00-16:30		16:00-17:00	
16:40-17:30	16:30-17:30	16:40-18:00			
17:30-18:30	17:30-18:30				
18:30-19:00	부처님 마음이야기	18:30-19:00	캠프화이어		
19:00-20:00		19:00-20:00			
20:00-21:30		20:00-21:00			
21:30-22:30		21:00-22:00			
22:30-23:00	취 침	22:00-23:00	취 침		
23:00-24:00		23:00-24:00		교사회의	